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구좌읍 세화리 해녀 고영순 해녀 인터뷰 - 2

해녀: 고영순(1939년생, 만 80세, 어촌계장),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출생

인터뷰 일자 : 2019. 06. 18. 오전 11시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고영순(A로 기록)

Q : 작살 사용하는 거는 어떻 해 봅디가?

A : 작살은 이 헛무레 가는 사람은 다 갖고 갑니다. 가민 바다에 가서 고기 봐지민 작살 쏘고, 경헌디 무신거 소라 헐 때는 안 앓앙 다니곡, 경헌디, 헛무레라도 좀 거의 저 뭇 다 해븐 다음에 한걸 헐 때는 작살 앓앙 가서 고기가 고기도 쏘곡.

Q : 작살로, 고기 막 좋은 고기들도 잇인덴 허멍 예?

A : 어이그. 다금바리도 있고 막 많이 잇입니다. 그 고기 사는 딴 해녀들이 아는 사름은 항상 그 어염에 가서 뒹고, 삼바리, 고기 기르는 삼바리를 바다에 노니까 그 안에서 또 고기들도 알 싸고 그렇게 해서 커. 경허민 그런디 아는 사름은 거기 우선 들어가. 고기 쏘레

Q : 그 연철은 언제부터 사용 해수과?

A : 고무옷 입을 때

Q : 아, 고무옷 시작할 때

A : 고무옷 시작허니까 자기몸에 맞게. 덜 맞으면은 앞으면은 그것이 자기 몸에 안 맞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. 막 힘이 내도 물 힘에 들어가지도 못 허고, 또 너무 많이 돌아메민 들어가서 일으켜 잡다가, 올라오질 못해서 죽는 사름도 있고, 경해서 사고가 그런식으로도 많이 납니다게. 천초헐 때. 앞은 디지만은 그 좀 오랜만이 간 분들이 이 연철을 덜 싸니까 힘드니까 많이 허면은 될 걸로 알아가지고 탁 숨버서 헐 때민 그 연철이 너무 무거우면은 일어나, 일어사지를 못 해가지고 경해서 사망허고. 그렇게. 올리도 뭇 하도는 매 해, 올리도. 하나 죽고.

Q : 그 종게 호미렌 헐 때 종게 호미

A : 종게 호미, 종게 호미

Q : 증그다¹⁾는 뜻인가, 종게라는 말이?

A : 아이고, 종게 호미라는 건 미역 헐 때만 사용 허는 거, 간단하게 하는 거, 좀 가늘고, 가 간단하게 가볍게

Q : 아, 모양이 다르구나.

A : 예, 다릅니다. 경헌디 뭇 그추룩 그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손 딱 조룩 이신디 영 틈나게 허고 이렇게 해서, 가뿐허게, 사용허기 좋게

Q : 예

A : 경해서 종게호미 종게호미, 그렇게

Q : 그 바당에 들어가면 깊은 바당 가까우면 몸에 수압이 어떻 느껴집니까?

A : 아이, 거난 고무옷 입은 뒤에는

Q : 그 전에

1) 증그다 : 잠그다

A : 고무옷 입은 전에는 그대로 뭐 봉돌 안찔거든. 해녀 저 속곳 물옷 입을 때는. 그대로 닦만 탁 허게 던지면은 닦 그 위에 소라 망아리 아래 자기가 이 여에 허고 싶다 허면은, 그 닦을 노면은, 그 두렁박이 어디 돌아나지 안허영 그대로 있고, 거민 숨벼서 그거에 들어가지고, 고무옷 안 입을 때는 그런 거가 없었고, 고무옷 입으면 연철에, 연철에 달려서 딱 몸에 맞으면 싹 들어가고, 더 짚이 들어가고, 또 반

Q : 수압

A : 예

Q : 수압이 몸에 지장을 못 느낌

A : 예

Q : 음

A : 어떻 안합니다.. 숨만 남으면 거난 해녀덜은 숨 긴 사름은 짚은 데 가서 허고, 숨 쫄른 사름은 그렇게 짚은 디 흔 십오메타(15m) 좀 들어가면은 자기의 호쉴 **운바낸**다 허면은 못 허야지 그걸 욕심 부려서 막 허다가는 안되고

Q : 그러면 귀 고막에는 어떻

A : 귀는 요즘에는 되는데로 **꿈²⁾**도 씹어 가지고 막고 했주마는 숨 저

Q : 밀은?

A : 밀 저, 뭐 허는 거 그걸로, 요즘은 밀도 잘 안 합니다게.

Q : 양초로 만듭니까, 밀은?

A : 아니, 청, 청, 청주씨로

Q : 응

A : 걸로 잘 저서가지고, 흑비리게 찌닥찌닥허게, 경헌디 밀이 완전허게 허는건데 꿈도 담 요즘은 썩도 해가지고 버무려서 담고, 그렇게

Q : 바다가 내가 어디쯤 와졌다라는 건 어떻 인식을 합니까?

A : 바다가 보면은 여가 다 매일 덩기니까 여가 알지 안합니까? 이 조개왔디나 옷조개왔이나 알조개왔디 가면은 이거는 어디다 이거는 불락여다 다 여를 먼 바당에 가도 뭐 다 알아가지고 어디가 처음에는 소라가 잘 올르는 디다, 경허고 잇인 디 강 닦 뉘가지고 그대로 숨비고

Q : 아, 밑에서 다 알아 차렴구나 양?

A : 예, 물 알이 흰 허니까 자기가 매일 물에 덩기니까 요거는 어느 여다, 요거는 어느 여고, 어디 가면은 이 때 소라가 좀 잇일 거다. 경해서 사름 많이 다녀 난 디 앓아 노민 막 많 이 헐 거고, 사름 막 다녀난 디는 엇고,

Q : 여기도 조금에서 여섯물에 다냄지 양?

A : 예, 여기도 여섯물. 혼물부터 여섯물까지 허는 디, 것도 겨울철에는 저녁이 너무 어둑을 때는 좀 일찍 들어 가지고 인척 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, 그렇게

Q : 그 바다가 막 무서울 때도 잇입니까? 뭣 때문에 무서웁니까?

A : 무서울 때 엇입니다. 무서우민 물질을 헐거파게. 이런 그 뭐 날이나 칙칙허던지, 갑자기 바람이 바빠져서 불던지, 이 제주돈 이런데는 모섭고 그런거

Q : 무섭지 안해. 해충 같은거 뭐, 불가사리라든지 이런거

A : 불가사리아 봐지민 가서 좇어 와야주. 무서우민 물질 못합니다. 경허고 또 들어갈 때 뇌 선을 먹으면은 좀 숨이 몸이 좀 가벼와 가지고 좀 더 다니는 모양이라. 우리도 우리 헐

2) 꿈 : 껌

때는 뇌선은 안 먹어났어요.

Q : 예

A : 예. 이제는 뇌선은 두텁씩.

Q : 물질허는게 재미

A : 여름에, 여름에 가면은 여름에는 비니루에 싸가지고, 바당에 막 깊은 디 허는 사름들은
쌍 두렁박에 뵈다가 또 그 기운이 엇어져 가민 또 그거 먹고.

Q : 아,

A : 거른 몸이 좀 가볍고, 좀 귀도 안 땡기고,

Q : 물도 담양 감수과?

A : 아니, 짠물 거 조금 먹으면 뇌선 한첩이야 뭐 그냥

Q : 짠물로?

A : 짠물로, 먹엄주. 그거 물을 가져가는 건 안합니다.

Q : 육지 물지도 갖다 읍디강?

A : 예, 삼년(3년) 갔다 왔는디, 경북 인양 갔다오고, 또 저 어디 경남

Q : 뵈허레

A : 거기는 우리가 갈 적에는 거기강 천초도 즈물고, 성게 허고, 뭐든 잡주게

Q : 음

A : 거기서 거 천초가 많이 허고, 구룡포 곶은 데도, 대구 갔다오고 구룡포 갔다오고, 구룡포
는 천초를 많이 해주렌 합니다. 몰착 떠가지고, 경해서 삼월달(3월달) 나면은 나가가지고
팔월(8월) 대목 때는 다 들어와. 경행 돈벌영 오는 사름도 있고, 빗 낭 오는 사름도 있고,
빗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못 벌영 오는 사름도 있고,

Q : 직접 돈은 가정 올 거?

A : 가정오주. 미역 해가지고, 미역을 해서 단 짓어가지고, 우리가 통영 가서 풀고, 마산, 마
산 가면 값이야 더 받거든. 경해서 마산 가면은 흰 단에 얼마, 경허면은 미역단이 좋게
붙인 사름은 많이 받고, 그저 알롭게 붙여 가지고, 미역은 보면서, 들러 보면은 무게 나
가는 거 흰허게 알지 안합니다? 스무개에 흰 단 해가지고 허면은

Q : 아까 열여덜살부터 몇살까지 했었던 해수과?

A : 육십 넘도록 했습니다마는

Q : 더 허셔도 될건디

A : 아예, 경헌디, 그 후에도 흰번씩은 다 다녔지만은, 다녔지만은, 물질 계속 허는디 육지 다
니고 흰 때는 육십다섯(65), 그루 후에는 조금씩 허면은 성게 무레나 허고. 바다가 이 세
화 바당은 모래 바당이기 때문에 뭐 흰 것이 없어가지고, 해녀들은 많아도 지금 고통자는
많지만은 밭에 일허는 것만이 벌지를 못허여. 경해부니까 뭐 하루 일당은 벌어야 될 건디
요즘은 성게가 값이 비싸고, 팔만원(8만원), 칠만오천원(7만5천원) 허니까 뭐 삼키로(3kg)
5키로(5kg) 허면은 돈이 얼마씩 벌어. 경허니 일도 안 나가고.

Q : 거른 상군 해녀셔수과?

A : 예?

Q : 상군 해녀셔수과?

A : 예, 육지 갈 때는 천초도 저 상으로

Q : 상군 해녀?

A : 옛날에는 돈 벌이라는 게 미역뿐입니다게. 미역만 해서 해다가 막 그 막 즈물아다가 차가

있을까, 그자 저 날르는 걸로 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다 붙여. 경행 조친 마당에 쌀 낄 아가지고 그 우로 다 넣어. 경해서 이제 오후에 다 걸어.

Q : 그 저기, 숨비소리 있지 안허파 예,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

A : 다 허주. 숨이, 물 속에서 숨이 차니까, 막 차서 다다른 욕심에서 다다른 올라오면 하품 소리 곁이 숨비소리를 허면, 속에 것이 싹 우터레 나오면은 경해서 한결히, 또 이제 영 눈저배기 눈 물 영 우에서 보면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디다 헌 디는 또 그렇게 해서 숨쉬어서 들어가고,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숨비소리가 나오고

Q : 그 불턱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할 때는 누구 주장이 가장 셉니까?

A : 이디 영 회장덜이나, 좀 우엿어른덜³⁾, 경헌디 오늘은 바다도 곱을 붙여 가지고 미역힐 때. 오늘은 어떤 바당쪽으로 가서 미역을 힐 거, 또 이제 차례차례 해가지고 막 섞어놓으면은 이디 강 썩덱이고, 저디 강 썩덱이면 안되니까, 경해서 미역 물일 허는 디로 이제 처음 해가고, 촛춤촛춤 가와리 허면서 미역을 뜯어내가지고 그 거뻘이 돈이 없으니까

Q : 옛날에 불턱은 뭐 굳는 거 보난, 애기 뺨 사람들은 애기 뺨 사람들끼리 모여 앉으곡, 뭐 그런 말씀은 엿어나스강?

A : 에이, 뭐 그런거 안합니다. 불턱은 뭐 먼저 난 사람이 불을 다 때와 놔. 경헌디 이제는 나무도 없어 허니까 오래 안허주마는, 빨리 안허면은 자기 구덕에 다 이 검질을 다 담양 불 출거 가져가민 온전한 사름들이 추우민 다 그거 누구 구덕 힐거 엿이 좃당 보민 말제 나당 보민 자기 가져간 건 없어지고 해서.

Q : 그 댐 뭐파, 집줄?

A : 초가집줄도 갖고 좋게 앗앙 덩기는 사름이민 허주만은, 조나무 땡 마당에 낄아 옛날초가 집을 마당에 낄아나민 복삭허게 막 몰르지 안합니다? 그거 이삭 할 때민 그 큰구덕에 딱 담아가지고, 테왁 놓고, 물도 놓고, 눈도 다 놓고 해서, 또 고에기도 처음 날 적에는, 에~ 고에기가 오십(50)년도에 거 힐 때는 다 저 주 잘른 거, 그런 걸로 해주마는, 그루후에는 뭇로 했느냐면은 소가죽, 그거는 등이 복삭허고, 그거나 아니면은 물이 질질나서 젖으니까 다 그렇게 허면서 그에 따라 허고,

Q : 그 무속신앙 관련해서는 여기 점순이 할망당, 세화리 해녀분들은 예?

A : 아니우다.

Q : 아니파?

A : 경허고, 이제 요왕맛이 가는 사름도 있주만은 요즘은 절에서 많이 허니까 경허고, 또 그 냥 가는 사름도 있곡, 이 점순이 빌레 가는 그 할망당에는 모든 소원을 다 잘 들어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덜도 이런 막, 허물

Q : 허물

A : 그런 것도 나면은 그디가서 빌고, 또 그게 있어가지고 좋게 잘합니다. 제도 그디가서 다 드리고, 요왕에도 드리고

Q : 뭐, 해녀분들이라고 해서 그디 가는 건 아니잖아 예?

A : 예, 예. 막 일본서도 다오고, 여기 세화사름덜은 어디 결혼을 해도 이 본향을 찾아서, 자기네 본향을 찾아서 이제, 이월 열이틀(2월 12일) 열이틀에, 이월 열이틀, 시월 열이틀(10월 12일) 해서 다닙니다.

Q : 여기는 뱃물질이 아니라 바로 굿물질이라고 볼 수 있잖아 예?

A : 예 예. 뱃물질 허는 디, 월정 곁은 디, 김녕 곁은 디 물 션 바당 멀리 가는 거 그렇게 허

3) 우엿어른덜 : 윗어른들

지, 뱃물 안합니다게.

Q : 그 아이들이랑 해녀하면서 결혼하고, 아이들 키우고, 그런 얘기 좀 해주십서.

A : 그 해녀일 하면은 그 옛날분덜은 게, 애기덜 물질을 허게 허니까게, 요즘은 애기덜이 좀 뭇해가민 경 애기 나는 사름, 우리 시절에는 애기가 있으면 동네사름덜이 도왕 봐주던지 경헌디 오래 사른 거는 안되고, 경헌디 요즘은 어린이집에도 가불고 허주만은 경헌 사름덜이 물질을 안허여, 무레 허는 사름이 있주만은 물엘 안 뎅기니까 요즘 세상에 어디 젊은 아이덜

Q : 아니 여촌계장님이 아이덜 키울 때, 결혼하고

A : 시어머니네영 시아버지네영 있고, 다 거 우리 시부모네가 저 농사도 많이 안 짓고, 막 재산은 많이 해도, 다 세를 줘불명 농사도 안허고, 아이 봐주고 이런 가구점, 그런거 허기 때문에 아이덜 보는 건 안해줘

Q : 그럼 막 세계 물질은 안헌거여 이?

A : 나 육지 뎅길 때만, 육지 뎅길 때는 막 하영 갔다와가지고, 여기 헐 때 가서, 장난 게 막 가가지고 집에선 장난 못허민 이젠 물에 오면은 막 벗덜이 만나면은 막

Q : 재밋고

A : 예, 재미있다 다 불 가운데 다 디밀랴불고, 불도 다 기슬릴 수도 있고

Q : 벗덜이영

A : 예. 막 그냥 가다가 이제 감저⁴⁾ 밭 이시만 고구마 밭 디 강 감저 파가지고 정 간거 물질 보다도 장난할라고 막 해주만은 결혼 헐 후에는 그것도 헐히 되수다. 못 허고게. 다 시간 맞형 열흔시(11시)에 들지 안허민 열흔시에 다 나가민 되는 거고

Q : 요즘 여기도 보말 납니까?

A : 예. 보말 다 햄수게.

Q : 보말

A : 보말도 이제, 여름철에, 이 유월 칠월에가 쟈 솔져가지고, 똥 곱은 것이 다 허영, 다 알쌀 기간이니까 그렇게,보말 성게도 그렇고, 소라도 다 이 때, 오분제기도 다 이 때, 모든 것이 다 이 유월 칠월에 다 산란기간이라부니까 막 솔집니다. 고기도 바다 고기도 구렇고,

Q : 그 군소렌 헐 것도 요즘은 잡암수게 이~

A : 군소 이제 안해. 그 것이 너무 늦으면 사월(4월)이 넘어가면은 써서 먹지 못 해. 막 크긴 커도. 이제 군소도 게, 흐모리에 천오백원(1,500원)씩 경해가지고 했는디, 것도 십이월달 부떠는 많이 안 나고 일월달부떠 삼사월까지는 많이 나.

Q : 청강은 여기는 안나고

A : 청각은 이 모래 바당에 막 많이 낚지만은 많이 안 납니다. 저 남군더레가 막 많이 나주, 청각.

Q : 감태는?

A : 감태는 올리는 원 올리지 안 허연. 팔월 때. 전에 막 이 때에 헐 번 올리고 허는 디 바다에 감태가 너무 많이 난 거 다 커서 올라부니까 이제는 조만씩 허난에 헐 삼년만 있으면 또 막 많이 날겨. 그런거가 이서야 소라도 크고, 먹을 것덜이 다 있는 디 그런 거가 아직은 어려가지고

Q2 : 선생님은 질문 헐 거 이수과? 여기는 해녀로 논문 쓸려고, 이거 가지고 이제 논문 써보

4) 감저 : 고구마

렌 햄주마쌈. 물질

A : 게난 옛날에는 그 초롱불에 그 할아버지덜 다 이렇게 노꼬아가지고 그거를 흔 이백발 큰 망사리엔 이백발 정도 허고 아이덜 거 해가지고 그 드레⁵⁾ 해가지고, 예염 둥근거 그거 해다가 다 오그려가지고 묶어. 경해서 껍데기 벗겨사 해주고, 옛날엔 망아리엔 허민 썩지, 신사라로 허민 썩지도 안 허고 물 잘빠지고 허주만은 요즘은 헛무레 허는 거 소라 곱은 거 다 그물 없으면은 다 나와부러. 경헌디 이제는 그물 물에 뭐 망사리 다 스키프로 다 되부니까 뭐 얼마든지. 테왁도 바다에 올는 거, 그 저 두렁박 허는 거, 그 바다에 올른 스폰지 거 올르면은 고급배들 해난 거, 그 거 해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그런 두렁박, 해서 멘들았네, 아무데나 내비동 다니곡.

Q2 : 그러면, 해녀들 상군들과 하군 중군 있고 하잖아 예, 작업하는 장소가 다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같은데서 하는지

A : 아니 우리 흔 어촌계는 이 어촌계에 동이 틀린데 많은데는 두 밭디 세 밭디 허는 디도 있주마는 하도 곱은디는 7개동이 다 있거든. 경허주마는 세화곶은디는 탈의장에서 모이면 다 옷갈아 입어가지고 가주. 다 흔디 들면. 물에 들어서 물건 해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헌다 죽으다 그것 뿐이지 다 곱이.

Q2 : 그럼 주로 여기서는 옛날 배타고 잘 안가고

A : 아 우리 물질 덩길때는 발동기 타. 발동기 타가지고 쌀, 팔월달⁷⁾지 삼월달 가서 먹을 거,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뭘 쌀밥 먹었어요?, 저 보리쌀허고 좁쌀해서 먹었주. 부제로 좀 잘사는 사람은 좀 보리쌀에 풀도 섞으고 해서 먹고, 경 안헌 사람은 조팍, 보리밥에가 더 어려와. 경허난 이젠 그런 쏘이 더 비싸가지고 밥맛을 먹어보젠 해도 또 어렵고

Q2 : 미역을 하게 되면, 내가 미역을 많이 해오잖아 예, 그러면 아까 한집에서 다 한다고 하셨잖아 예, 그러면 주로 남편 되시는 분이 와서 그걸 미역을 가지러 오는지, 아니면 나는 남편이 없으면.., 미역을 한망만 하는게 아니고, 두망사리도 하고, 세망사리도

A : 아니 미역도 많은 곳에 앓아다 주는 사람은, 많이를 메역을 캐내면, 많이 지는 사람은 질 구덕에 빵빵 지면은 그거 너는 것은 그 때 너는 것이 아니고 뒷날, 아침부터 새벽이 일어나가지고 조집[조침] 조대, 조나무 대를 해가지고 끌아가지고 그걸 짝 허여. 이제 곱으면은 육지 보면은 그거 허는데, 다 차광막 그걸로 다 해가지고 허는 디, 여기는 그 때 시절에는 그게 어려와. 경허고 마중 가는 사람이 흑시나 있고, 애기덜 젓 맥이레 가는 사람이 있고 허주만은 옛날에는 오십년대에 그 때는 경운기도 없고 허니까 경운기로 가는 사람도 없고, 요즘은 성게 허는디고 다 우린 아니지마는 다 흔사람이 흔나라. 남편 있는 사람은 남편가고, 달라주는 사람, 또 이제 해녀는 또 꺼낸 그 살을 성게 알을 빼내는 거, 그 추룩 헛거 허면은 하루 많이 허는디는 칠팔키로, 많이 나는데는. 보통은 이삼키로, 경해도 요거 돈은 현금으로는 심오만원 돈은 되거든. 경허니까 막 바당에 감만 허민 돈이하노니까 경허민 욱심덜 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던 말아지던 막 그렇게 허고, 또 그전이는 몸이 아무더라도 했주마는, 그사람덜도 요새는 다 짐작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만큼 계민 여덟 시까지 해서 와서 까고 그렇게 합니다. 해녀덜 돈 어렵지 안허여, 왜냐하면 도에서 고무옷 주고, 또 탈의장 지어주고, 또 기름 대어주고, 의료보험 혜택주고, 아, 그러니까 뭐 해녀덜 지킴이 허는거 다 내주고, 원 해녀덜 살 맛이 났습니다. 요즘은 몸만 건강허면은 해녀 작업이 돈을 벌어. 다 지원을 해주니까, 이 문화재 뭐 해난 후에는 더 해녀덜이 그

5) 드레 : 다래. 가을 열매인 다래 나무의 열매나 또는 면화 따위를 카리키는 말. 자그맣고 둥그란 열매나 둥근 것 따위를 가키키는 말로 두루 쓰임.

냥 더 나아가지고⁶⁾ 못허는게 뭐, 무용단을 허던지, 이제는 옛날식으로 안해도 옛날은 그런디 강 허면은 부모님들이 뭐, 아이들이 그런디 가서 안된덴 허주마는, 요즘은 뭐 노인 회고 어디고 다 자기의 모든 뭐를 다 해가지고, 각 노인회덜도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허고

Q2 : 감태는, 옛날에는 감태도 많이 해놔잖아 예.

A : 감태를 왜정시대⁷⁾에는 했주마는, 그때는 왜정시대에 거 화약 뭤로 현다고해가지고 해놔는 디, 그 후에는 약재로도 많이 나가고 허주마는, 감태가 헐허거든. 경헌데 그 때는 막 많이도 났주마는 안행 내분것도 있주마는 요즘은 감태 육십키로에 이십만원이라. 감태가 없어부니까. 계난 국내에서도 소비 못허고 일본에 나가곡, 화장품에도 나가곡 소문만 들었는데, 이십만원이면은, 육십키로에 이십만원이면은 돈이 하주게. 경해서 와서 이리 막 널고, 물름만 허민 다 돈. 경허난 몸만 건강허면은 해녀덜이고 뭐 밭에 일도 그렇지만은 몸만 건강허면은 제주도 사름덜은 못 먹영 살지 안 허여. 다 곱은 쌀밥에다가 다 먹는 것이 다주. 더 잘먹고, 더 옛날에는 어느 때 바당에 가면서 화장을 하고 다녀. 요새는 가면은 뭐 썬크림 막 짹짹 붙라가지고, 강 온 사름도 해년지 아닌지 모르시리 행 다니는데. 옛날에는 강 물에 갔다오면은 눈곱이 문뚱허게 나가지고 해놔는 디, 이젠 그런 것도 엇고, 하도 사치들을 허니까, 허면서, 물질도 다니고, 건강만 허면 밭에 일이고 논에 일이고 제주도 사름은 못살지 안허여. 건강이 문제주.

Q : 암전복하고 숫전복 구분을 어떻게

A : 숫전복은 거무룽허면서도 움탕허게 솔이 많고 수량허게, 이 암전복은 납작허여. 납작해가지고 암전복이 살이 죽아. 숫전복이 나민 '아이고, 오늘 숫전복이 떴다.' 알맹이가 시력허게 많고, 움탁허게 해가지고, 솔이 부푼허고 이 암전복은 납작, 납작행 요즘 일본서 들어오는 전복 닳아 납작, 일본 전복은 다 보통 납작허여

6) 나아가지고 : 날아서 => 놀다 : 날다

7) 왜정시대 : 일제시대